

올해로 乾淸宮에 전기불이 켜진지 116주년, 최초의 민간전등이 시점(始點, 始燈)된지 103년 되는 해이다. 그나마 민간 시등일은 규명(糾明)이 되어 기념해 오고 있으니 다행한 일이다.

그런데 왜 격년으로 기념해야 하는지..., 또 전기의 날이면 전기의 날이지 왜 '전기산업진흥대회'라는 수사(修辭)가 붙어야 하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었는데 초기 전력사(初期電力史)를 더듬어 보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기로 하자.

## 1. 乾淸宮 始燈과 '電氣의 날'의 재인식

### 가. 전차 야간운영에 따른 電氣燈 점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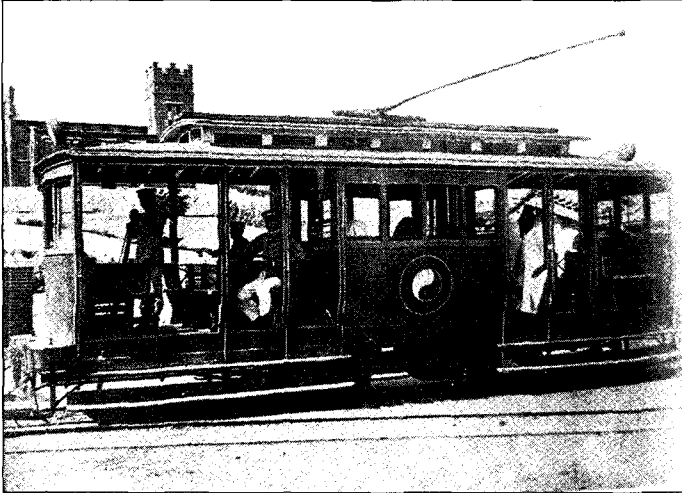
1898년 1월 18일 漢城電氣會社가 설립되고 이듬해 5월에는 우리 나라 최초의 전기로(電氣路)가 새문안(新門路)~동대문 간에 개설되어 전기로차(電車)가 운행을 개시한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한해 동안 우여곡절을 겪은 전기로차 운행은 차츰 안정되어 갔고 한성전기는 사업의 확장을 피하게 되었다. 해가 뜨면 운행을 개시해 저녁 해가 지면 어김없이 운행을 끊던 전기로차가 일몰 후에도 다닐 수 있게 운행연장 조

치가 취해진 것이다.

그 동안 시민생활은 대중교통 수단의 등장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었다. 당시의 사람들은 해만 지면 두역시니가 나타난다고 믿었고 실제 밤에는 많은 도둑들이 여기저기서 출몰함으로 해가 진 후에는 나다니는 것을 삼가했다. 그러나 종로는 물론 남대문으로 하여 용산(원효로) 간에도 이미 전기로차가 다닌지 너댓달이 되어 교통이 편리해졌고 생활수단을 도모하기 위해 왕래가 보다 빈번해지면서 활동범위가 넓혀져 갔다.

이런 상황은 자연히 일몰 후에도 사람의 왕래가 필요한 상태로 사회가 변해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왕래



〈개통 당시의 전차〉

인 수가 많아지니 보는 눈이 많아져서 변화한 곳에서는 도둑의 출몰이 없어졌다. 이런 현상은 일몰 후의 교통수요가 그만큼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한성전기가 이 유리한 사회적 변화를 놓칠 리가 없었다.

마침내 1900년 4월 9일을 기하여 밤 10시까지 전기로차의 연장운행을 결정하였다.

당시 황성신문(皇城新聞)은 4월 9일자에서 「전기로차 연시(延時)」라는 제목으로 전차의 야간운행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한성전기회사에서 4월 9일 이후로 청량리에서 남대문까지, 또 청량리에서 경교(京橋; 서대문)까지의 두 전기로에서 전차를 밤 10시까지 연장 운행하기로 하였다. 다만,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부득이 종전대로 낮에만 운행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한성전기는 그 동안 전기로의 주요 정거장에 야간조명 시설을 하기로 계획을 추진했다. 그러나 자금사정으로 한꺼번에 전매하소(賣下所; 전차표를 파는 곳)에 일제히 전등을 설치할 형편이 못되었다. 매하소는 바로

전차를 타고 내리는 공식장소이기도 했으므로 야간운행을 한다면 조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서비스 사업의 당연한 기업태도이지만 당시는 봉사정신이라는 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의 시절이었다(낮에는 매하소 이외의 장소에서도 두서너 명이 손을 들면 태워주곤 하던 시절이기도 했다).

우선 손님이 가장 많이 타고 내리는 종로매하소(지금의 鐘閣쪽)에 1900년 4월 10일 야간전등(街燈이라 하였다)을 설치하고 이날 밤에 점등이 이루어졌다. 우리는 이날을 '전기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한국전력 이전만 해도 '전기의 날'을 잘 몰랐다.

우리 나라 최초의 건청궁 시등일도 또한 민간전등시등일(始燈日)도 모르는 상태의 전력사(電力史)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통합 한전 발족과 더불어 한국전력 홍보실(당시의 공보실)에는 문필계 및 언론계의 우수한 인사들이 참여하여 일을 보고 있었는데 이들과 친교가 있는 국학자(國學者) 손도심(孫道心, 자유당의 명 선전부장 역임)씨가 홍보실에 자주 출입했다. 1965~1967년에 '한국전력 5년사'를 편찬함에 따라 손도심씨가 시등일 규명에 앞장섰다.



〈종로의 전차매표소〉



〈한성전기회사 사옥〉

### 나. '電氣의 날' 밝혀지기까지

한편 광복 전 일정(日政)의 경성전기(京城電氣) 감리과장을 지낸 「기시젠(岸謙)」씨는 대전(大戰)과 동시에 귀국하여 한반도에서 활약하던 뜻있는 인사들이 한일간의 우호를 도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설립한 중앙일한협회(中央日韓協會)의 기관지 유우호(有邦)에 조선 전력사업(朝鮮電力事業)의 뒷배기를 연재하고 있었고 거기에 1900년 4월 10일 종로에 민간가등(民間街燈)이 처음 점등되었다는 사실(史實)을 기록해 놓고 있었는데 한전은 그 기록을 입수했다.

손도심씨는 건청궁(乾淸宮)의 최초 시등일을 밝히지는 못하고 매천야록(梅泉野錄)과 대한계년사(大韓季年史)를 섭렵하여 1900년 4월 10일 최초의 민간시등을 했다는 사실(史實)을 밝혀냈는데 이것은 일본인 「기시젠」씨의 기록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 뒤 1987년 「한국전기백년사(韓國電氣百年史)」를 편찬하면서 황성신문(皇城新聞)을 섭렵하여 종가(鍾街, 鍾路)에 밝힌 민간전등은 삼좌(三座)였음이 밝혀졌다.

한좌에 한등짜리면 3등, 두등짜리면 6등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좌에 몇등짜리 가등(街燈)이 설치되었는지는 아직 불명이다.

이때 한성전기는 우선 종가에만 가등을 설치하고 그밖의 중요한 곳에는 순차적으로 설치하였다. 종로 가로전등 설치 한해 전에 중요한 거리에는 석유등 가등이 설치되었고 한성전기의 전기등 가등이 매하소마다 모두 불을 밝히면서 한동안은 전기등과 석유등이 병존하는 밤거리 모습이 계속되었다.

손도심씨는 이 날을 전기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할 것을 제의했고 한전 홍보실도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었으므로 대한전기협회장 겸 한전 사장의 재가를 받아 마침내 「電氣의 날」이 탄생한 것이다. 그리하여 전기계(電氣界)내에서 이 날을 기념하게 되었는데 제1회 전기의 날 기념식은 4월 10일에 맞추지 못하고 1966년 4월 27일에 거행되었다. 제2회부터는 4월 10일에 맞추었던 것은 물론이다.

경제발전에 따라 각 기관·단체는 그들의 첫발을 내디딘 날을 기념하고자 원했고, 한전을 위시한 전기계도 「전기의 날」을 정식으로 정부가 인정하고 기념일로 지정해 주기를 청원했다. 상공부는 총무처와 협의를 거쳐 마침내 1970년 12월 5일 상공부령으로 4월 10일을 「전기의 날」로 제정하고 이를 공포하였다. 그 후에 정식으로 정부에서도 참석하는 기념일이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가 가기도 전에 정부는 각 기관·단체의 기념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이를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리하여 몇 개의 기념일에 대해 정부의 승인을 거두어들였다. 전기의 날도 도마 위에 올랐다. 문명의 발달로 새벽을 연 민간전등 시등일도 한편에서는 그리 대단한 역사성을 지닌게 아니라는 폄하(貶下)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구 삼사 통합 한전 발족 이후에 술한 난관을 극복하며

장기전원개발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경제고도성장의 밑거름인 기초에너지를 확보하는데 성공한 전력계였지만 당장 경영에 악영향을 주는 문제도 아닌 정신문화적 문제이므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나설 필요가 없다는 협량(狹量)에 사로잡혀 있어 현상유지를 건의하고 나설 배심도 없었던 것이다. 뜻있는 인사들이 「전력문화 전통」을 얘기하면 씨도 안먹히는 소리하고 다닌다고 업신여길 때였다.

그리하여 격년제의 '전기의 날 전기사업진흥축진대회'가 되었다.

반면에 '물의 날' 같은 경우는 해마다 그 기념의 밀도가 더 짙어지는 느낌이다. 수요자측의 물 절약을 고취시키는 한편 공급자측의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시설개발 등을 촉구하는 행사가 더욱 대대적이다. 또 수질보전을 환경정화의 차원까지 넘나드는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키는 단계로 기념목적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물은 생명보전의 기본재이므로 생활 필수적 성격이 전기보다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물은 자연에서 쉽게 구해 물쓰듯 썼으므로 전기와 같은 역사성은 지니지 못했다. 그래서 생산공급과 수요과정의 전기처럼 정지성(精緻性)이 필요한 것도 아니지만 '물의 날'은 대대적으로 기념되고 있다.

전기계가 '전기의 날'을 매년 기념할 수 있도록 기념일 제정 당시의 자부심을 복원하고 더욱 분발하여 제대로 된 기념행사를 펼쳤으면 한다.

#### 다. 乾淸宮 始燈의 歷史性

4년 후에는 건청궁 시등(乾淸宮始燈) 120주년을 맞게 된다. 전력사의 중요한 절목(節目)이다.

전기계는 지금부터라도 기념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기100년 때도 코앞에 닥쳐서 부랴사랴 이것저것 해본다고 둘러대므로 기획 부족, 준비 부족으로 제대로

뜻을 살리지 못한 것을 보았다. 주요기관, 단체나 기업들을 보면 이런 역사적 절목이 없어서 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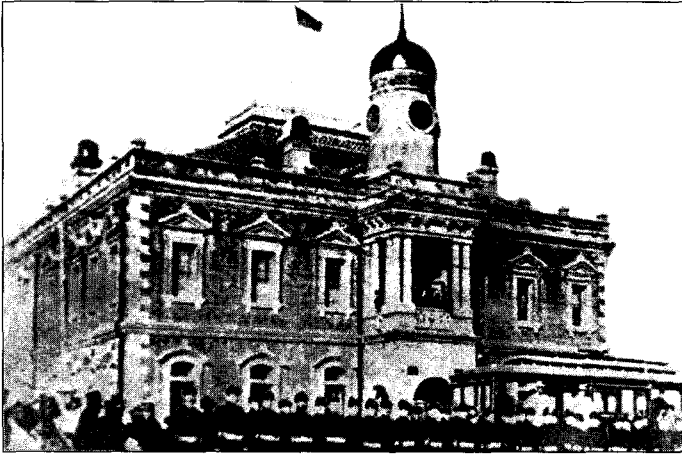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지구가 몇 바퀴 저절로 돌아 쉽게 얻어진 게 아니다. 모두 전시대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발자취 위에 다음 세대가 새로운 발자취를 남기고 하는 반복과 진보의 역사과정을 거쳐서 오늘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각 시대를 밟고 간 발자취에는 저마다의 열과 지혜가 묻어있다. 물론 잘못 밟은 발자취도 있지만 이 모두가 후시대인들이 되새겨야 할 교훈들이 배어 있는 것이다.

116년 전에 최초로 전기불이 켜진 일, 103년 전에 민간 시등이 이루어진 일은 중대한 발자취를 떼어놓은 시점이라는데 되새겨야 할 큰 역사성이 있다. 이런 역사적인 날들을 후시대 전기인들이 잊고 지낸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여기서 꼭 짚어야 할 일은 電力史의 첫장을 여는 '최초 전등 점등일'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전기계는 이에 대한 관심이 아주 미미하다. 다른 단체나 기업에서 이런 일에는 열일 제쳐놓고 관심을 집중시켜 적극적 대처를 하는 것을 보면 부러울 때가 많다.

이번 '전기의 날'은 우리 전력인들이 전력의 역사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역사에 대한 관심과 탐구 등의 정신적 지향(指向)을 역사가들은 '상상력의 역할'이라고 규정하고 이 역할은 '사회적 생산 기반의 일부'라는 이론이 자리잡혀가는 요즈음이다.

당시인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를 되새기는 일은 과거의 문화와 현재 문화 사이에 대화를 나누는 일이다. 100년 전 전기문화와 현재 전력문화의 대화를 위해서도 건청궁 시등일은 밝혀져야 하고 그 고증과정에서 우리는 당시인들의 생각을 상상하며 무한한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과거, 현재나 전기는 똑같이 사회발전의 기본요소 중 주요부분이라는 것을



〈한성전기회사에 긴급 배치된 미국수비대〉

알게 되고 우리는 자부심을 더욱 굳건히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2. 初期 電力사업을 통해서 본 韓·美 관계

### 가. 전력사업 매개로 韓·美간 접근

19세기말 仁川을 통해 조선에 들어온 영국의 외교관 커즌(Curzon)은 처음 조선의 사정에 접하면서 “블라디보스톡과 나가사키(長崎)에서 함부로 차는 축구공과 같다”라고 표현하였다. 영국도 뭔가 챙겨보려고 하던 시절, 나라가 운동 외세의 각축장이 되어 있던 엉망인 조선의 사정을 두고 한 말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나라가 19세기 말 유럽(歐美)의 새로운 문물을 도입하는 일과 경제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 추구의 목적으로 가장 깊숙한 관계를 맺은 것은 미국이었다.

조선에서 서양문명이 동양문명에 비해 실용적이고 기술발전이 앞서 있음을 접하게 된 계기는 임진(壬辰)왜란과 병자(丙子)호란을 겪은 17세기 경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때는 보고 듣고 한편에서 실용물자나 기기가 일

부 들어왔어도 권력자에 의하여 이용되었을 뿐 백성들의 생활에 끼친 영향은 아무것도 없었다. 서민들에게도 깊숙이 침투하여 이들의 생활을 바꾸고, 생각도 바꾸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 유럽(歐美) 열강이 물밀듯이 들어와 서로 특권을 차지하려고 각축을 벌이던 때부터이고 그 한가운데에는 전기(電氣)가 있었다.

전기의 이용은 전등(電燈), 전차(電車), 전신(電信), 전화(電話) 등 실생활수단을 송두리째 바꾸는 새로운 문명세계를 형성해 갔다. 나아가 나라와 사회도 변모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만 해도 강전(強電)과 약전(弱電)이 확실한 분야로

나뉘어지기 전이어서 대개 전기기술자는 두 가지 일을 다 보았고 나라의 통제와 행정업무도 대개 한 기구에서 다루었다.

전기·전신부문을 맨 먼저 채용해 그 편익을 만끽(滿喫)한 것은 황실에서부터이다. 새로운 문명이 출현해서 거기에서 나온 생활이기는 엄청난 고가이므로 백성들이야 언감생심 접근할 수도 없었다.

전기문명의 이기 가운데 가장 먼저 도입한 것은 전신(電信) 쪽이었다. 1885년 9월 서울~인천 간에 전신이 개통되었고 한성전보총국(漢城電報總局)이라는 정부기구도 생겼다. 전화는 더욱 많은 시설비가 들어갔으므로 그 해에 궁중에서 가장 먼저 개통되었다. 그러나 궁내 사무의 연락 등에 주로 쓰였고 임금에게는 알현(謁見)하거나 나인을 통해서 의사전달이 이루어지는 엄격한 법도가 준수되고 있어 임금이 가설 초기에 이용했다는 흔적은 없다.

또한 당시의 생활태도가 서두르는 것을 타기(唾棄)하고 느긋한 행동이 숭상되는 매너의 시대였으므로 편익성에도 불구하고 전화의 보급 속도는 느렸다. 그러나 전기는 달랐다. 밤을 낮처럼 환히 밝히는 혁명적 편익성 때문

에 우선 고종임금이 도입을 서둘렀다. 그래서 미국의 기술에 의하여 가장 먼저 건청궁(乾淸宮)에 1887년 3월 초순 첫 전등이 켜진 것이다.

### 나. 전기를 내세워 事瑞 연 미국인

전신과 전화의 초기 도입은 청국(淸國)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청국은 조선을 지배하려는 야심 때문에 전신부문의 장악을 꾀했던 것이다.

한편 전기의 도입은 미국에 의해 이루어졌다. 전기는 군사기술의 도입이나 어떤 과학문명의 도입보다도 가장 실용적이고 백성의 생활방식도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는 문명의 이기였다. 그러나 방대한 시설비용 때문에 황실이나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전기의 이용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전기등이 경복궁 내 건청궁에 가설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은 것은 1882년 5월 조미수호통상조규(朝美修好通商條規)가 맺어진 1년 뒤 주조선 미국 초대공사로 부임한 후트(Lucius H. Foot; 福德)이었다. 그가 제의한 보빙사(報聘使) 일행을 조선정부가 미국에 파견했고 이들이 뉴욕에 머무를 때 시찰길은 안내하고 자기 집에 초대하여 극진히 대접한 후레이자(Everett Frozar)가 조선의 명예총영사로 임명되자 Foot 공사에게 조선정부와 교섭하여 전등 및 전화 독점권을 얻어내도록 종용한데서 전기문명의 사단(事端)은 열렸던 것이다.

당시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지 110여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문명의 발달 정도에서 유럽 나라들에게 뒤지지 않았고 전기분야 등 몇 개 과학기술분야에서는 오히려 앞서 있었다. 미국은 열강 가운데서는 식민지 야욕이 별로 없는 나라이면서 진취적인 기상은 강했다. 그래서 황실과 정부는 열강 가운데 그들의 요청을 가장 먼저 받아들여 1882년 수교조약도 맺고 건청궁 전기불도 켜며 경영권을 내주는 한성전기도 설립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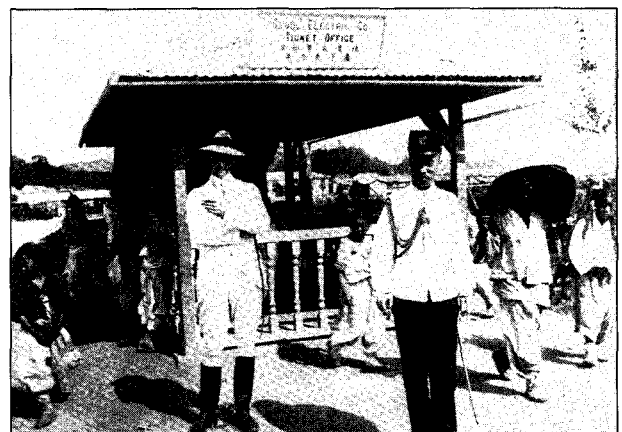
전기의 편익에 매료된 황실이 전액출자로 설립된 한성

전기는 황실이나 조정의 재정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신규투자가 늘어나고 경영을 맡은 Collbran과 Bostwick의 불성실한 경영으로 실패한 기업이 되었다.

### 다. 영토적 야심 없다' - 미국 선호

명성황후(明成皇后) 능인 홍릉(洪陵)에 왕래의 편익과 백성에게 대중교통을 제공함으로써 생기는 사업수익 등까지 내다보고 설립한 한성전기이지만 지금까지 과학적 데이터에 입각한 사업 타당성의 면밀한 분석에 의해서 이루어진 출자가 아니었으므로 고종(高宗)은 결국 큰 손실을 입었다. 미국과 미국인을 믿고 경영을 맡긴 Collbran은 황실의 순수한 후원자가 아니었다. 그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 황실을 우롱했고 단적으로 말해 사기(詐欺)를 쳤다. 그러나 경영과정에서는 그런 계략은 드러나지 않았고 미 국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그들의 경영행동을 주한 미국공사관이 지원하고 나서니 한·미 간에는 외교적 마찰이 빚어지는 사례가 빈발(頻發)했다.

그러나 고종은 1887년 이래 경복궁 제1전등소 소장 McKay의 희생적인 죽음, 선교활동에서 가난한 백성에게



〈매하소의 미국 종업원〉

보인 시혜(施惠), 왕실이 구조를 받은 여러 건의 의료혜택 등, 미국인들의 인도적 차원의 구휼(救恤) 활동을 높이 평가했고 정치 외교적으로 야심이 적은 활동을 눈여겨 보아왔기 때문에 이들에게 호의적이었다.

특히 청국과 일본의 식민야욕을 들어낸 강압적 외교·정치·군사적 시위에 대해 년덜머리가 낳던 고종은 세계 도처에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는 유럽 열강보다 미국을 선호했다. 미국도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필리핀을 지배하고 있었으나 자치권을 부여한 느슨한 지배에 머물러 있었으므로 혹독한 지배권을 쥔 유럽 열강과 비교되었다. 이렇게 미국인에 대한 신뢰감이 확고한 고종은 그 뒤 당초의 약속이라며 한성전기를 거저먹으려 하는 미국인과 격심한 분쟁에 휘말리면서 외교적 마찰이 격앙되지만 청·일 전쟁과 노·일 전쟁이 나라 안에서 전단(戰端)을 열자 미국과의 분쟁을 양보로서 수습하고 그들의 도움을 요청했다. 결국 사심 없는 구원자는 미국뿐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별로 도움을 못 받고 관계는 끝나고 만다.

100년 전에 일으킨 최초의 국영기업 한성전기. 이 회사의 경영권을 다른 열강에게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의 초기 전력사는 더욱 비참한 종말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혹시 한성전기의 경영권이 구실이 되어 나라까지 그 경영권 장악국에게 내주었을지도 모른다.

### 라. 버팀목이 있었기에 우리의 國富 이루어

광복과 더불어 일제가 물러가자 한·미 관계는 한 다리 놓은 간접관계가 아니고 직접관계로 긴밀한 유대가 맺어진다. 그리하여 한국전쟁도 같이 겪고 피도 같이 흘리는 혈맹(血盟) 관계가 굳어졌다. 100년 전과 똑같은 과정과 똑같은 패턴을 밟고 맺어진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큰 흐름에서 비슷한 역사적 반복의 모습을 보이며 맺어진 것이다.

전력사업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광복 후 미군정은 조선 전업, 경전, 남전을 완전히 접수하여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광복 직후의 전력부족사태 속에서 발전선을 보내주었고 6·25전쟁에서의 비상전력 확보, 전재 전력설비 복구의 지원, 장기전원개발의 행정 및 기술원조, 원자력기술 도입의 협조 등 미국의 기여도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

이런 과정에서 그들이 일부 이득을 챙긴 것은 물론이지만 한성전기 시절에 황실과 조정을 멸시하면서 들어먹다시피한 그런 부도덕한 방법이 통하지도 않겠지만 국제적 상거래에 의한 것이었지 주권을 무시하면서까지 하지는 않았다.

미국은 지금 외교·군사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안보의 많은 문제를 그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그 우산 아래서 우리는 능력을 마음껏 펼치면서 오늘의 연부역강(年富力強)한 국력을 키워냈다.

그 동안 그들과의 우호관계는 혈맹에 걸맞게 순탄하게 유지되어 왔다. 그런데 올해가 한미동맹 50주년이 되는 해라는데 이들과의 사이에 이상 징후를 느낄 수 있을만한 상황들이 접촉(接觸)하고 있었다.

물론 그들이 우리 나라에 머무르는 것은 그들의 장기전략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하더라도 북한을 포함해 현재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힘의 구도 속에서 그들은 우리에게 큰 버팀목인 것이 사실이다. 미국이 그들의 힘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간다면 안보의 불안은 가중될 것이며 「東北亞 허브」의 꿈을 흐트러지게 할지도 모른다.

1세기 전 고종 황제가 한성전기 문제 때문에 미국과 격심한 분쟁을 겪으면서도 나라가 누란(累卵)의 위기에 빠지자 분쟁을 접고 그들에게 손을 내민 것은 그 길밖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한 세기마다 역사는 비슷한 상황으로 반복된다는 일부 주장이 아니더라도 고종 때의 일을 생각하며 오늘의 한·미 관계를 깊이 반추(反芻)해보지 않을 수 없다. ■